

SOCIETY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직업계고 진학·공공기관 취업 공금증 해소”

2025 광주직업교육박람회 가보니

직업계고·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63개 부스 운영 학교별 강점·자격증 취득 안내하며 신입생 유치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장래 희망을 세울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11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광주 직업교육박람회’는 많은 중·고등학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3개 직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광주지역 기업 등이 63개 박람회 부스를 구성해 진학·교과과정,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각 부스에는 학교 강점, 공공기관 합격자 명단, 자격증·취업 지원 등이 담긴 포스터, 현수막을 내걸며 신입생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광주자연과학고, 서진여고, 송원미래인재고 등 재학생은 전단지과 홍보물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교과과정을 알렸고, 교사들은 학생의 장래 희망과 취업 기관 등을 안내하며 궁금증을 풀어줬다.

광주자연과학고교에서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안우성·여경래·최현석 세명과 각종 요리대회 사진 등을 선보였다.

김유주 학생(광주자연과학고·2년)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중학생들에게 교과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알려줬다”며 “학생의 반응이 좋아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공무원 전국 최다 합격, 공공기관 합격자 수기 등을 내건 광주여상은 지폐계수기를 활용한 100만원 맞추기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서진여고는 신생아 돌보기, 정맥·근육 주사 체험하기, 수술복 착용 등을 통해 졸업 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으로 진학이 가능한 점을 언급했다.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부스는 박람회 진행 5분 만에 오전 접수가 마감되며 학생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학생들은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 액세서리 착용,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 면접 전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광주 직업교육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서진여고 홍보부스에서 정맥·근육 주사놀이 등 직업 및 전공 체험을 하고 있다.

략을 체득했다. 주 무대에서 진행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기업의 채용 설명회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채용 관계자는 회사·채용 전형 소개를 시작으로 고졸로 입사한 동료의 사례, 고졸 전형 경쟁률을 언급하며 취업 강점을 소개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한 고등학생이 자격증 가산점 여부, 연봉 등을 물어보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민준·이찬 학생(신가중·1년)은 “학교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드론, 자동차 설비를 직접 체험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진로를 어렵거나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직업교육박람회는 12일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직업계 고교 홍보·점공 체험을 비롯해 ‘생각을 선포하는 남자’ 저자 김태원 작가의 특강, e-스포츠 경기(FIFA 온라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예산 절감·낭비 공개 조례 ‘무용지물’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되는 내용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구(2013년), 광주시(2018년), 남구·북구(2020년)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구와 광산구는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기금의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구민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광주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표창제도를 명시했으며,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

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급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조례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에 대한 시정요구와 조치 결과 등을 매년 1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낭비 사례가 꾸준히 누리집에 공개되는 경우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의 경우 매년 상반기에 신청 일자, 처리기관, 처리부서 검토 결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낭비신고 현황을 공개

매년 1회 사례·조치결과 공개 의무에도 자치구 ‘0건’ 자치구 “취지 맞는 신고 적어…대다수 민원성 내용”

하고 있다. 반면 조례가 제정된 3개 자치구는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해 절감 사례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 불만’과 같은 민원성 신고가 다수여서 딱히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광주시의 예산낭비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건을 접수했다. 이중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22건, 예산 낭비 등과 관련 없는

신고 19건 등으로 90%가 관련 없는 신고였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건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 2건은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로 집계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자치구에 접수된 예산 절감, 낭비 신고 사례 등에 대해 광주시에서 취합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며, 일반 민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관련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는 거의 없어 공개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남구 ‘통일열차’ 4년 연속 매진

하반기 운행 380석 마감…높은 관심 이어져

오는 10월과 11월, 광주 남구 효천역에서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파주로 향하는 금강산·도라산행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이 4년 연속 매진됐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통일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총인원은 380명으로, 남구는 은·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10월 14~15일 1박 2일로 금강산을 향하는 강원도 고성행 열차 180명과 오는 11월 4일에 떠나는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 열차 탑승객 200명을 모집했다.

이중 지난 9월 3~5일까지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모집과 지난 10월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올해 신규 코스인 금강산행 통일열차는 1박 2일, 4인 1조 접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개 좌석을 가득 채운 채 효천역에서 출발하게 됐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26개팀(104명)이 몰려 현장 모집 정원인 18개팀(72명)을 훌쩍 초과하기도 했다.

기회를 놓친 8개팀(32명)은 온라인 접수로 탑승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숨을 돌렸고, 나머지 탑승객 27개팀



상반기 진행한 남구 통일열차.

(108명)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프라인 접수 사이트도 서둘러 문을 닫았다.

한반도 최북단 역을 방문하는 경기도 파주 도라산행 열차는 4년째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 모집 정원 80명을 조기 마감하고, 온라인 접수 장구도 분주하게 가동돼 개시 17분만에 선착순 120명 접수를 마감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성원과 열정으로 올해도 통일열차가 달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통일열차가 힘찬 기적 소리를 울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월단체 “노재현 주중대사 내정 철회를”

“학살 책임자 직계 가족…민주 국민 모독 행위” 정부, 국내 절차 마치고 중국 아그레망 대기 중

오월단체가 정부의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주중대사 내정을 규탄했다.

11일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태우씨의 장남인 노재현씨의 주중대사 임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노 이사장에 대한 주중대사 내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오월단체는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의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5·18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그 정신 위에서 있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배신이며, 역사의 아픔을 다시 짓밟는 폭

거와 다를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다시는 역사적 상처를 외면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 이사장은 한·중 수교 20주년인 지난 2012년 동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양국의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을 벌여 왔다. 또 지난 2021~2022년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교육청 “악성 민원은 교육감 명의 고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은 지역교육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에 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교원의 요청과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

오늘의 날씨

예보 06:13, 바람 21:18, 예보 18:44, 바람 11:09



Table with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cities: 광주 (21-27), 목포 (22-28), 여수 (23-27), 순천 (23-27), 구례 (21-28), 광주 (21-28), 진도 (23-29), 목포 (23-27), 고종 (23-28), 진도 (23-28).

Table with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for specific locations: 목포 (05:03 / 17:42), 여수 (10:09 / 22:36), 여수 (12:03 / --:--), 목포 (05:30 / 17:56).

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체포

만년필 ○광주 도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소리를 피우고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시내버스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승객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해 소리를 피운 혐의를 받아.

A씨는 차량이 정차한 뒤 자신을 제지하던 40대 버스기사 B씨를 밀치고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에 탑승했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쳐 발전 재개…내일 전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5호기(가압경수로형, 1000MW급)가 제15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10일 오후 10시38분 발전을 재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빛5호기 발전은 오는 13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빛5호기는 지난 4월7일부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전연료 교체, 원자로 상부 헤드 교체 및 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앵커 교체 등 설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원자로 헤드 교체 과정에서 발견된 누설에 대해 보수·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